

수준 높은 강의...창업으로 이어져

날마다 좋은날, 제3기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개최

불교계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 날마다 좋은날 부설 사회적기업전문(특화)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 강좌가 사회적 기업 창출에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은 지난 해 11월부터 겨울과 봄 2차례에 걸쳐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교육은 지난 해 11월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 필요성' 등 사회적기업의 미션과 비전, 설립 프로세스, 마케팅 등 불교계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6월까지 진행된 강좌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CEO 등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불교계가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창업 계획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특화교육이 실시되면서 창업 준비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3기 아카데미 개최

그동안 지난 두 차례의 강좌에 이어 9월 6일~10일 23일까지 '제3기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실시되며, 현재 모집 중이다.

그동안 사찰 및 스님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및 마인드 부족이 불교계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업단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강좌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불교계를 대표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

히 진행하는 스님들을 강연자로 초청했다.

▷신록노인복지센터 센터장 혜철 스님 '음식 콘텐츠 분야' ▷대전 중구시니어클럽 관장 천장 스님 '시니어복지 콘텐츠 분야'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진오 스님 '다문화 콘텐츠 분야'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명상치유와 템플스테이' 등이 강연자로 나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 인식 확대

스님들 직접 비즈니스 모델 제시

실용주의 학습법 효과 거둬

창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

박주연 사무국장은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하면서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절감했다"며 "사람들의 고민의 질이 달라졌다. 처음 '불교계에 사회적 기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인식위주에서 현재는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좌는 그런 인식변화에 맞춰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계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업단의 아카데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잇따른 창업도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단 측은 "현재 2기 수강생 35여명 중 3명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며 "가시적인 성



불교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2기가 지난 6월 수료식을 보유했다. 사진은 2기 참가자들의 모습이다.

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기 아카데미 수강생이었던 김호현(스쿨프린팅 대표) 씨는 현재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 중에 있다. 김 씨는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는 강의료도 비싸고 이론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무료인데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연계해 주고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강생 남지심(소설가) 씨는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기존 창업자들이 직접 강연에 나서 필요한 창업 준비를 알려주니 좋았다"며 "불교계에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돼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문제시 됐던 정부지원 문제 등에 대해 사업단이 경영 및 마케팅에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사회적 기업 창업에 편견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서로 간 네트워크를 통해 동문회를 결성하고, 정기적

인 모임과 워크숍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불교는 다양한 콘텐츠 지녀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현황을 비교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것 같다. 그보다 점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불교계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불교는 공예용품,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여행 등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교육적인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나가다 보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찬영 단장은 "숫자만으로 타 종교와 사회적 기업 현황을 비교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것 같다. 그보다 점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불교계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불교는 공예용품,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여행 등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교육적인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나가다 보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02)732-7273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중앙신도회, '전국신도회'로 명칭 변경

조계종, 중앙신도회 명칭 변경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국 신도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승)은 8월 17일 현 중앙신도회 명칭을 전국 신도회로 변경하는 종헌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계종은 중앙신도회가 종단 신도의 대표기구로서 그 면모를 갖춰 제반 신도교육 및 조직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종헌 제122조 2항 '중앙에는 총무원장 관할하에 중앙신도회를 구성한다'를 '중앙에는 총무원과 관할하에 전국신도회를 구성한다'로 변경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 명칭변경에 관한 종헌 개정안은 2005년 당시 사단법인 전국신도회는 법인을 해소키로 하고, 통합신도회의 명칭은 전국신도회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중앙총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개정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종단 신도회 통합을 시행했으며, 종헌개정 이전까지 중앙신도회 명칭을 써 왔다.

조계종은 "현재 종헌·종법 규정은 본 사별 교구신도회와 종단 등록 전국단위 신도연합단체를 아우르는 신도대표기구로서의 종단 신도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명칭이 '중앙신도회'임에 따라 인식의 혼란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활동에 장애가 돼 왔다"며 "2011년 신도회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본격적인 종단 신도교육 및 조직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때임을 감안해 중앙신도회 명칭변경을 통해 종단 신도의 대표기구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종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헌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원각사 '대중 불교문화 강좌' 개설

9월 13일~12월 27일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

경기도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가 일산 구 일대 탄현지구와 식사지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강좌를 연다. 원각사는 9월 13일~12월 27일 매주 목요일마다 식사동 법당에서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다. 강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는 ▷최선일(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경기도 문화재위원) ▷장희정(동국대 강사·충북 문화재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각각 4회

에 걸쳐 불상과 불화에 대해 강의한다. 또 ▷신대현(사찰문화재연구소장) ▷손신영(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각각 불교공예와 불교건축에 대해 강의한다.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은 "이번 강좌는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강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각 스님은 불교전적에 대해 2회 걸쳐 강의를 진행하며, 9월 9일 오전 11시에는 사찰음식전문가 선재 스님이 '불교음식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이은정 기자

"가족애착놀이로 행복해요"

놀이학습, 동요지도 워크숍 등 프로그램 확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족애착놀이 강사양성교육'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혜로운여성(원장 김애주)과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지난 7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템플스테이회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애착놀이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인도,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 강좌마다 참가자들은 흥정에 흥정에 치료놀이상담센터 소장의 체계적인 놀이를 지도받고 가족들과 함께 재현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놀이 지도법을 익힐 뿐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가자인 한 여성은 "빨리 교육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놀이를 집에 가서 활용하니 아이 아빠가 훨씬 더 즐거워했다.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가족애착놀이교육을 통해 가족 간의 교감을 키우고, 학교 등 교육장에서 재능기부로 놀이교육 활동을 진행하



참가자들이 짝을 지어 가족애착놀이 학습의 하나인 '손 닦아주기'를 하고있다.

고 있다.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혜로운여성은 문화체험, 동요지도, 메이크업 교실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현정 연구교육 팀장은 "여러 해 동안 서울에 거주했다라도 도심 속 사찰을 방문

할 기회가 없었던 이주여성들을 위해 불교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 등 특별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유익한 배움을 얻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강원파라미타 제4회 청소년 여름캠프 진행

강원파라미타(회장 정남)가 8월3~5일

낙산사 유스호스텔에서 제4회 청소년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산사 체험과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학생 및 교사 150여 명이 참여했다.

'마음나누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버추(virtue: 미덕)놀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원파라미타 지도법사 금선 스님은 "버추놀이 프로그램은 요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잠재돼 있는 미덕과 장

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불교전문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도 진행됐다.

강원파라미타 회장 정남 스님은 "강원 지역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낙산사를 비롯해 강원파라미타는 지역 청소년들이 확실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 일시 : 2012년 9월 6일 (목요일) 오후3시 (목탁지참)
- 교육 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신 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 강의 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도량서,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헌 공 편(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제의식편(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사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음,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8월 16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